

영암군, 産團 스마트통합관제센터 가동

통합시스템 갖춰 실시간 데이터 수집·관리·운영
AI 분석·디지털트윈 플랫폼등 사전예측 대응도

전남 영암군이 최근 영암읍에 산업단지 안전, 환경, 교통, 재난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산업통합지원부의 '산단개조사업' 공모로 국비 85억원 포함 총 1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센터는 기존 CCTV 관제 기능을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시스템으로 확장해 핵심 기반시설로 운영했다.

"CCTV 관제실", "서버실", "제

로 산업단지 상황과 각종 재난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사물인터넷(IoT) 센서 네트워크, 디지털트윈 3차원 산단관리 플랫폼 등 첨단기술로 재난 사전 예측 및 신속 대응에 나날 수 있게 됐다.

군은 스마트통합관제센터가 안전사고 예방, 골든타임 확보 등으로 기업과 직원의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는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넘어 환경청·스마트 산업단지로 도약하는 디딤돌이다. 앞으로 영암군민과 기업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마트통합관제센터로 산단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 영암군은 향후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기업과 협업체계 강화, 지속 가능한 안전 산단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영암=정현남 기자 jcrso@sminilbo.co.kr



아산시 온마을 복지 한마당
충남 아산시가 지난 18일 열치를 은평나루길 일원에서 제26회 사회복합의 날 기념 '아산시 온(溫)마을 복지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복합 종사자와 시민 500여명이 참석해 복지 인식을 높이고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사진은 행사에 참석한 오세현 시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예천동 '트리니 서산' 특별공급
서산시, 혼인·출산 9가구 모집

충남 서산시는 예천동 688번지에 조성되는 (가칭)트리니 서산의 특별 공급 대상자를 오는 25일부터 10월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칭)트리니 서산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시공하는 민영주택으로 지하 2층~지상 26층, 10개 동, 전용면적 84~128㎡, 총 82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2028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이번 특별 공급 모집 대상자는 충남도에 무주택 미혼 청년과 임신·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 공급량 829가구 중 97가구(전용면적 84㎡)를 특별 공급으로 모집한다.

세부적으로는 ▲혼인 전처 특별 공급 4가구 ▲출산 전처 특별 공급 57가구.

특별 공급 신청 자격요건은 본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일인 10월 16일을 기준으로 충남도 또는 대전시,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청약 당첨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납입한 분이어야 한다.

서산=최복규 기자 cbg@sminilbo.co.kr

첨단기술로 재현한 '명랑대침죽제'

전남도-해남-진도군 공동개최
3일간 총 17만8000여명 방문

전남도와 해남군, 진도군이 공동 주최하고 (재)전라남도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5 명랑대침죽제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해남-진도 물물골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22일 전남 해남군에 따르면 최첨단 디지털 융복합 기술을 활용

하여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19~20일 진행된 주재공연은 판옥선을 그대로 구현한 길이 32m의 웅장한 주대에서 펼쳐졌다. 현대 ICT와 애션 활용, 파이어웍스가 어우러진 실감형 무대로 이순신 장군의 행적과 명랑대의 건국반을 소개하는 AI 영상과 드라마틱한 연출로 담겨 큰 호평을 얻었다.

주재 공연은 첫날 공연 이후 입소문을 타면서 20일 두 번째 공연에는 더욱 많은 관람객이 몰리는 흥행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명랑대침죽제는 1일자 4만 명에 이어 2일자 7만명 등 총 17만 8000여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개막한 명랑대침죽제는 해군 군악대와 해남·진도군민 1200여명이 참여한 진도대교를 행진하는 출정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21일까지 호국 역사와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이 펼쳐졌다.

축제에서는 우수명랑대침죽제 상문공장에서 온거려 강강술래대회, 전국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케이팝 댄스플레이, 바블·매지스트를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공연이 있다.

해남=정현남 기자 jcrso@sminilbo.co.kr

구미시 온누리상품권 대축제
25일부터 최대 14만원 현금

경북 구미시가 대경선과 함께가는 추석·가을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대)축제를 추진한다.

전날 시장 이용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2025 K-온누리페스티벌(온누리상품권환급)' 행사는 25일부터 11월1일까지(44일

간) 열린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중앙시장 상인연합회가 주관하며, 대경선 인접 점포시장 등 3곳(새마을중앙시장·문화로·중앙로동문상점가)에서 진행된다.

행사기간 중 소비자는 행사지역 점포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시 구매금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일 1인 최대 2만원까지이며,

행사기간내 총 14만여명이 환급이 가능하다. 구매 증빙은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인감도장, 간이영수증은 사용할 수 있다.

환급소는 이용고객의 접근성을 고려해 새마을중앙시장과 문화로에 각 1곳씩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구미=박병성 기자 pbs@sminilbo.co.kr

강진군, '재정집행 우수' 5회 연속 선정

올 상반기 집행률 105.4%
소비·투자 분야 114% 달해
특교세 4000만원 추가확보

전남 강진군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전남도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동시에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로 강진군은 무려 5회 연속 우수 시·군에 이름을 올렸으며 안테나비로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올해한도 1억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

는 평가를 이무려 재정 행정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 군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1547억원을 훨씬 웃도는 1631억원을 집행하며 집행률 105.4%를 달성했다.

특히 일차적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소비·투자 분야에서는 목표액 666억원을 초과한 761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114%라는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

이번 성과는 단발적 결과가 아닌 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 능력을 입증했다.

올해 1분기는 목표액 1547억원 중 895억원을 집행해 전년 동

기 대비 13.9% 높은 실적을 기록했으며, 소비·투자 분야에서 목표액 585억원을 크게 웃도는 734억원을 집행해 단일 분기에도 탁월한 집행 실적을 보였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업 지원, 체류형 관광지 조성, 재해복구 및 취약계층 복지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기반을 마련했다. 예산은 곧 정책 실행의 원동력은 인식 아래, 현장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적기 투입 체계를 정착시킨 것이다.

강진=정현남 기자 jcrso@sminilbo.co.kr

민·관 손잡고 '노후주택 화재' 안전망 구축

전남도, 총 5503가구 점검
화재감지기·소화기 등 지원도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복지와 안전을 결합한 민관 협업체계를 추진해 취약계층 노후주택 화재위험을 개선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앞장서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도는 지난 6일까지 두달 동안 우리동에 복지가동대와 119생활안전순찰대가 합동으로 노후주택, 다세대주택에 대상으로 화재예방 점검과 물품 지원을 추진. 목표치(5000가구)를 웃도는 5503가구(1만5333명)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지원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 화재위험 요인을 직접 개선하고, 노후주택 전기 사용에 맞는 안전용품들을 보급하는 등 맞춤형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뒀다. 총 3만13명(복지가동대 8734명, 순찰대 1만명, 공무원 666명, 기타 4401명)이 참여해 민관 협업의 힘을 보여줬다.

지원 대상은 홀몸노인이 2333가구(4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 가구(15.9%), 한부모 가구(11.1%), 다문화 가구(8.6%), 노인 부부(6.0%)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위험을 낮추기 위해 ▲누전 차단 멀티탭 8448개 보급 ▲소화

패지 2만4637개 설치 ▲노후 전선 정리 4386가구 ▲화재예방 현경교육 5251가구 실시 등 실질적인 지원을 진행했다.

'화재감지기(1844건)', 소화기(1953건) 보급, 가스터미어 점검(4015건)도 병행해 노후 아파트와 다세대 주거시설의 대형화재 위험을 크게 줄이며 선제적 안전복지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시·군별 자체 지원을 독려하고, 다가오는 동절기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집중 지원도 소방본부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황승훈 기자 whng04@sminilbo.co.kr

순천시, 27일 '올라가 디지털 페스타'

시민로서 마켓·체험부스 운영
공공배달업 막geb비와 협약도

전남 순천시가 오는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민로 일원에서 원도산 삼귀 황화제를 위한 특화 테마 축제 '2025 순천 올라가 디지털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별한 힐링의 시간 in 추억 도시 순천'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디지털 마켓, 체험 부스, 공연, 창업 행사 등이 어우러져

하루 종일 원도산을 축제의 장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순천 대표 디지털 마켓 20곳 부스 운영 ▲디지털 만들기 체험 ▲건강 힐링 체험 ▲올라가 별미길 창업 271 사식회 ▲원도산 폐이음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예산을 거친 12개팀이 참가하는 버스킹 경연대회와 열려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오후 4시에는 순천시와 공공배달업 막geb비 간 업무협약이 진행된다.

협약에는 순천시장과 순천시의회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순천시지부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순천시지부장, 공공배달업 막geb비 대표 등 5명이 참석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막geb비는 이벤트 추진과 가맹점 모집을 맡으며 소상공인단체는 회원사 가맹점 가입과 소비자 홍보를 유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내 가맹점 확대와 소비자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 전국 대형 배달업의 종돈을 줄이고 독자적인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이민석 기자 lms@sminilbo.co.kr

농업현장 41곳에 신기술 38건 보급

보성군, 시범사업 종합평가회
발췌문 신품종등 성과 공유

전남 보성군이 올해 추진한 38건의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성과를 현지에서 보고 공유하고, 2026년 농업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 기술보급 시범사업 종합평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농업인과 관계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해 해당 분야의 시범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사업 방향을 모색했다.

군은 올해 43억7000만원에 투입해 41곳에서 38건의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평가회에서는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성과와 현장의 목소리가 공유됐다.

주요 사업으로 ▲발췌문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 보급 시범사업 ▲온실 환경 개선 확산형 순환관 개 시범사업 ▲우사 여제트 펜스 및 축배 배기팬 설치 시범사업 등이 소개됐다.

발표에 이어 농가들은 사업 과정의 경험과 애로사항, 개선 방안을 직접 전달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접했다.

보성=황승훈 기자 whng04@sminilbo.co.kr

간추린 뉴스



농촌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남사예담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청군, 6개국 23명 초창 '농촌크리에이티브'

경남 산청군은 '농촌 크리에이티브 공모사업' 일환으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운영은 대형산불과 극한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이 위해 마련됐다.

캐나다, 그리스, 필리핀 등 6개국 23명이 참여한 행사에서는 산청의 농촌·환경·웹툰 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산청 크리에이티브 2025'에 선정된 남사예담촌에서 고즈넉한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 체험으로 한국의 전통미를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로컬 100선'에 선정

된 동요보감촌에서 주재관, 한의약박물관 등을 둘러보며 한방의 고장 산청의 역사와 가치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한국전통의학의 정수를 체험하는 공인대원을 거, 배급양제형 등 지유와 웹툰 관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산청=이민석 기자 lms@sminilbo.co.kr

청양군 내내 학술연구용역 과제 8건 심의

충남 청양군이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추진할 학술연구용역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청양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윤영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회 의원과 학계 교수, 연구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전문성과 객관성을 한층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사회보장특수교육 투자계획 수립 사회정책적 활성화 등 8건의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산청군은 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경제·문화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핵심사업들로, 군의 정책들을 보다 고도화하고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실행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지방소멸 대응, 사회정책적 육성, 생활환경 기반 확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주제들이 다수 포함됐다.

한편, 과제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언은 향후 과업 수행에 충실히 반영되며, 정책 수립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청양=최복규 기자 cbg@sminilbo.co.kr

영광군, aT센터서 찾아가는 귀농·귀촌 설명회

전남 영광군이 최근 사육시 양재동 aT센터에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귀농·귀촌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귀농·귀촌 준비에 필요한 제도와 절차, 교육과정, 주거·생활 등 정주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설명회에서는 선배 귀농인의 사례를 바탕으로 초기 정착 단계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고, 농지·주택 확보 절차, 작목 선택, 초기 자금 계획 등 기초 정보를 전달했다.

이번 군은 영광군 일반인청와 교통·의료 등 생활 인프라, 대표 관광지와 축제 등 지역 관광자원을 소개했으며, 정주·영농 관련 각종 지원 제도와 신청 절차도 함께 설명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주거 마련과 농지 입차, 자금 지원 요건,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 방법 등이 다뤄졌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도리이주보다는 정보 수집과 체험을 거쳐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책·교육·정주 지원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장영성 기자 jay@sminilbo.co.kr

장흥군 장동면, 취약계층 무선 LED등 교체

전남 장흥군 장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207가구에 무선 LED 등등 교체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장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복지사업으로 협의체 위원들과 우리동네복지가동대원들이 기존 노후된 형광등을 무선LED 등등으로 교체했다.

거동불편 노인들이 자택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등등을 쉽게 켜고 끌 수 있게 생활의 편의성을 제공했다.

이날 복지가동대는 노후주택 전기 안전점검 등을 함께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일련으로 장동면장은 "이번 LED전등 교체로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기안전을 실시해 화재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장영성 기자 jay@sminilbo.co.kr

진도군, 양성평등주간행사... 유공자 11명 표창

전남 진도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하고, '성평을 넘어 진도군이 하나 되는 평등 사회 실현'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도군 여성단체협의회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희수 군수를 비롯해 박금례 부군수, 진도군의회장, 도의원 및 군의원, 여성단체협의회, 기관사회단체장, 군민 등 200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기념식은 지역내 '육구를 리인덴스', 진도의 전통문화와 무형유산에 바탕으로 청년 예술인들이 모여 만든 '청년문화 아트페스티벌 이리'를 주제로 시작했다.

이어서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하고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기념, 양성평등 유공자 11명에 대해 표창, 양성평등 실천 공헌(퍼포먼스), 너·나·우리 함께 행복 만들기' 특강이 진행됐다.

조관경 군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이 행사는 단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공존하며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진도=황승훈 기자 whng04@sminilbo.co.kr